

가정예배 안내서

7

1993

충현의 만나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하여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7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한용관·성봉환·

조윤재·장봉생·김수상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저술 연대는 바울의 투옥 생활이 끝나던 AD 62년 이전이라고 본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본 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2년 동안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서의 수신자는 서두에 있는 ‘데오빌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서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 개종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특성과 사역이 본 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본 서의 내용은 ① 인자의 출현(1:5 ~ 2:52) ② 인자의 공생애 준비(3:1 ~ 4:13) ③ 인자의 사역(4:14 ~ 9:50) ④ 인자의 배척받음(9:51 ~ 19:27) ⑤ 인자의 고난과 부활(19:29 ~ 24:53)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8:48)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 분을 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건디기 힘든 고통 속에 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환영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고,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에서 풀려나고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2년 동안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을 해결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찾아와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아이로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 뒷편에서 그 순간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여인을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다음 세 가지 유익을 끼쳤습니다. 첫째로,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의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48절). 둘째, 그녀의 고백은 아이로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즉 다른 이의 신앙에 유익을 준 것입니다. 셋째, 군중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축복은 예수님께 물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도 그 분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 기도 / 주님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소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9:6)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파송되어 행한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파송 목적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파송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직무를 완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롬 15:18,19, 고후 12:1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환영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환영치 않으면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환대하는 집들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예비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했습니다.

▶ 기도 / 주여, 복음을 예비된 곳에서 전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9:11)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들은 벳세다 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청종한 무리들은 해가 넘어가는 것조차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감으로 염려하여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내려 보내어 유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곳은 빈 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천명이 모여 있는 곳을 그들은 빈 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육의 양식이 없는 곳이요 그들에게 공급할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염려하는 빈 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찬 곳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만물의 생산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위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행위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이적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준 징표였으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예증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빈 들에서 역사하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안목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 기도 / 세상 빈 들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일곱배의 영력을 주소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9:23)

본문은 예수님의 품격과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요 8:24, 요일 4:1-3).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과같이 우리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을 뿐입니다(롬 12:1,2).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삶은 지혜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축복의 삶입니다.

▶ 기도 /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9:29)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예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체험은 놀라운 것이지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일회적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희미해져 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변화되는 삶을 향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 기도 /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9:42-43)

본문은 제자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탄식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영광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46절). 제자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삶이 멈추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결핍입니다. 제자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체험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결코 귀신들을 내어쫓을 수가 없습니다(막 9:29).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들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영적인 은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사용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도 / 믿음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9:62)

본문의 말씀은 영광을 받을 날이 가까이 임하여 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광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당하는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하시는 환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마 8:19).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 갔습니다. 둘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지켰한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자원을 사람입니다. 주님을 좇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자로서의 훈련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결핍된 것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그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살펴야 합니다.

▶ 기도 /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소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10:9)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권면의 말씀(1-9절)과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10-16절)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시급하기 때문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4절)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문안을 금지하셨습니까? 고대 팔레스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입맞추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 놓던지, 손을 입술에 갖다 대거나, 한 손을 이마까지 천천히 올리는 등으로 문안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는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일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7절에 대접이나 영접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둘째, 고라신이나 벳새다보다는 이방이 복음 수용의 속도가 빠릅니다. 셋째,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 복음 전파자에게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새신자가 차고 넘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게 하소서.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10:21)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신(神)이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기뻐하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변적이며 유동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변의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혜롭고 슬기가 있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음을 말하며, ‘슬기있다’는 것은 지적인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기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지적인 능력이 결여된 존재로 취급받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평민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같이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고전 1:27,28).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지더라도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혜있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세상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백가의 성장을 주소서.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10:37)

본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과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는 마귀를 의미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기적인 믿음의 소유자,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도파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겼습니다. 주막에 맡길 때 데나리온 둘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며 당시 로마의 하루 숙박비는 삼십이분의 일(1/32)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두 데나리온은 약 두달치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역질문하시면서 무뎠던 양심에 말씀을 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들이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강도 만난자들의 이웃이 됩시다.

▶ 기도 /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는 덕을 끼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10:41,42)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도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대조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으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예수님께 터뜨렸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여인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선 순위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데 있었으며, 마르다의 관심사는 좋은 여주인이 되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상 생활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에 유익한 기회를 잡아서 과감하게 상황을 박차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 기도 /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에 두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잃어버린 천국 백성들을 모두 찾게 하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11:13)

본문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그것보다는 훨씬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핵심부분은 일치합니다. 간결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즉 이방인이 처음 독자(수신인)이기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며 예수님께서도 실천적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에 도전받은 제자들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 형태나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도 중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기도문을 예배 종료시에 암송하면 그냥 습관에 젖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의미도 생각지 못하고 외워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때 주기도문은 우리의 옆에서 울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울고 있는 주기도문이 되지 않게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격에 넘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울지 못하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 기도 /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모든 면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만일 ……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11:20)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현세(現世)에서도 천국이 임하였다고 합니다(요 5:24).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화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정과 교만과 더러운 죄와 바알세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귀신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그 후에 마귀, 귀신, 바알세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계 20:4,14).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미 임했으며 확장되어지고 아직 완성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천국이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임하길 기도합니다.

▶ 기도 /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11:32)

니느웨는 당시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도시는 원래 인간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만 모여서 떠드는 죄악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발달한 도시일수록 죄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수도였으니 그 죄악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멸망당하는 길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말들합니다. 길거리가 자동차로 꽉 차 있고들 합니다. 이런 자연현상도 문제이지만 정신적, 도덕적, 영적 매연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매연들을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유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도시의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예정이었던 멸망과 심판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도시들도 특별히 서울특별시와 여러 직할시와 도청 소재지들이 먼저 주의 이런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이 기독교인들로부터 먼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행복과 번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 위에 역사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11:39)

바리새인들은 이중 인격자입니다. 속사람은 탐욕이 이글거려 타인의 물건을 탐내며 시기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은 들지라도 그런 탐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악과 독이 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해서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하며 이름을 날리고 싶어합니다. 속에는 자기 영광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며 떠들어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굉장히 외쳐 댁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만과 종교적 사기에 고스란히 넘어 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들통나고 말것입니다만 속임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그 이중성을 환히 들여다 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헌납하여 서로의 필요량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헌납하는 무리 중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팔았을지라도 얼마는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그 때 그들은 그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진실치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깨달아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선교 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소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 참새보다 귀하니라』(12:7)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과 말과 동기 등등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환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광스런 대열에는 서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인간인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내로다 하면서 내 놓을 만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100%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질병이든 전쟁이든 실패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느브갓네살의 금신상에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좋고, 불에 들어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살 것이니 그래서 좋다는 마음이었었습니다.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혹시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십시오.

▶ 기도 /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선교 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소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12:21)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큰 부자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을 만났습니다. 추수한 결과 대단한 양이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조리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나 이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모든 소산물의 근원이 하나님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못한 자요 문이 꼭 닫힌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난한 가난뱅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러한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마땅히 자신의 이웃을 생각하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웃 중에는 혈벗은 이웃도 있을 것이고 굶주린 이웃도 있을 것이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그런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위한 삶에 대단히 인색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한 그의 마음은 썩썩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대단히 인색한 구두쇠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류의 인생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죄악의 삶이 침투해올 때도 있습니다. 단호히 물리쳐야 할 문제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병든 육신을 치료해야 합니다. 혈벗은 이웃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굶주린 이웃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재물은 제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 기도 /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여 나누며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혼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며 애굽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소서.

『주인이 와서 깨어 ……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13:27,4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잠을 생략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면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각각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의 현장도 있고 사회의 현장도 있고 직장의 현장도 있고 학교의 현장도 있고 교회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이기에 언제나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사실 이 삶이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나태하다든지 이기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당연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도 깨어 있는 것이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삶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깨어 있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임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 기도 /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해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하소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12:56)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은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서로 다른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어서 서로의 모든 가치관이 다르므로 분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일이며, 착한 행실을 바다의 등대처럼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예수님을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셔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언행심사(言行心事)를 하나하나 철저히 고쳐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십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기도 /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 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만일 실과를 열면 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13:9)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면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릇된 인과론적 형벌관을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할 것을 경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동기는 회개가 없고 신앙의 결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공박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저절로 자생한 나무가 아니라 오로지 열매만을 바라보고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서 주인은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의해 심판이 유보되었고 다시 한 번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우상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열매맺는 백성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홍콩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려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12)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던 여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고친 일에 대하여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의 잘못된 안식일 관념을 깨시고 안식일이라도 병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들려 많이 앓으며 이제는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생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18년 동안의 병상생활은 생각만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18년간 귀신에 매여 살던 괴로운 삶이 해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병들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서 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가장 절망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가 일찌기 예언한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병마 가운데 신음하고 죄에 매여 종노릇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께 영광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 /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소서.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가 현지 적응을 잘 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으리라』
(13:30)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길이 매우 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숫자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좁은 문은 한번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순간 다시 들어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하고 주님께서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닫힌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던 사람들의 말과 주님의 대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요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문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이십년 삼십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관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잘 믿지 못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닫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주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13:34)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보다 사랑하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예배받기 원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상징의 도시요 공평과 의와 평화가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상과 불법으로 망했던 도시요 또한 공의와 사랑이 식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신 이유는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언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듣기 싫어하여 다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흘러나오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죄악이 교권을 위하여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위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종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굳게 섰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갈길을 변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난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사명자들은 교권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 하고 사명감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11)

본문은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좌는 주인 바로 오른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말석은 주인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좌에 앉아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학문, 지위, 경건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초대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가장 큰 덕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서 사람으로 낮추셨고 그것도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며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도였으나 나는 죄인의 죄수요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요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높은 자리를 비우고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찬양집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14:23)

오늘 말씀은 영원한 세계에 있을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인의 초대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가난한 자, 불구자, 절뚝발이, 소경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서 주인은 큰 길이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명령으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의 강권하시는 사랑, 인간 구원의 뜨거운 열정, 무한하신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죄많은 우리들을 초청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의 열의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뜨거운 열심, 강권하는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이며 나로 하여금 성령충만케 하셔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애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성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14:27)

예수님은 제자들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쌓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정생활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활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건축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고 준공하기까지 충분한 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준비도 부족하여 망대 쌓는 일이 지장을 받는다면 완성되지 못한 망대는 결국 건축자의 수치가 될 것이며 그를 비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제자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제자에 대한 매력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재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요구하십니다(33절). 예수를 따르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 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하더라도 중도에서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15:10)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죄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은전 비유에서는 죄인을 잃어버린 은전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양과 은전을 찾기 위해 들과 집을 헤매며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며 찾는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은 하나에 대한, 즉 작은 것에 대하여 별 가치없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은전 비유에서 여자는 집에서 은전을 찾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은 방바닥이 진흙이나 흙이나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지를 가라앉히고 추위와 습기를 극복하려고 방바닥에는 밀짚을 깔아 놓았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은전을 찾으려면 밀짚을 걷어 치우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방바닥을 쓸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전을 찾으려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가시덤불도 지나야 하고 물이 없는 사막을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듯이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없이 쉽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는 이 비유에서와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양을 찾고 은전을 찾은 후에 노력의 보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잃은 양과 은전을 찾는 충현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잃은 양과 은전을 찾는 전도의 열심을 주옵소서. 이 민족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찬송 / 410장 성경 / 눅 15:11-32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15:20)

이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했고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종교적으로 이교도들과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돼지를 보살피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에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20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의 옷은 자기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표시하며 또 손에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장이 있는가락지로 인주를 찍어서 상거래할 때 날인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일에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는 특권을 아들에게 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당시 종들은 맨 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농아지들의 교회학교인 에바다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소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16:13)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비유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불의하게 빼돌리다가 발각되어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택할 수 있는 길이 천한 머슴으로 지내거나 빌어먹거나 하는 일인데 천한 머슴의 일은 힘들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궁리하여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탕감해주고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이나 이기심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오직 현재에 서만 살고 오직 현재를 위해 재산이나 기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재산을 활용합니다. 다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비유입니다.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로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16:19)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물론 저 세상(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직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Here and Now)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죄는 그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사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니다. 부자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의 34,000배나 되는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현대를 앓으며 자기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재물로 오로지 자기의 한 몸을 위하여 사용한 데에 그의 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없어 죄를 짓지 않은 나사로가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기에 사실은 부자보다 훨씬 부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나사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 현대를 앓고 있다면 과연 나의 눈에 공허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선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충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아들에게 떡과 복음이 함께 전달되는 풍요함을 주소서.

『이와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17:10)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비유 속의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며 하루일을 했는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시장한 채로 돌아옵니다. 비유에서 종은 일을 다 마치고서도 수종드는 의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이 다 먹고난 후에 먹고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필요는 종의 필요에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의 개인적인 필요조차도 주인의 명령을 우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인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고 그 주인의 소유물로써 종은 그의 책임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사례는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10절)”고 말씀하시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목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자기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기도 /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8월에도 함께 하소서.

구역공과



제 25과

하나님의 은혜

· 찬송 : 403, 405장

· 성경 : 엡 2:1-22

· 요절 :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사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1-10절)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아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새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요3:16).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주 안에서 하나됨(11-22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혈통이나 국가가더 이상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사랑으로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될수 있습니다.

·적 용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간증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26 과 하나님의 영광

· 찬송 : 50장, 376장

· 성경 : 고전 10:23-33

· 요절 : 고전 10:31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에는 우상신전이 많고, 제사음식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위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1. 묻지 말고 먹으라(23-27절)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식은 이미 상품이기에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으로 인해서 비난거리를 제공해 주거나,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28-33절)

(5) **하루 10분 영성수련**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고, 다른 것은 상대적인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 용

1. 성도는 제사음식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2. 내 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말해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제 27 과 불신앙의 죄

· 찬송 : 197장 · 성경 : 롬 14:20-23

· 요절 : 롬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이 앞서서 믿음으로 하기보다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물질과 하나님의 사업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신앙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음식으로 인하여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주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2. 믿음과 하나님의 사업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 특히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음식 등의 문제로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 직 용

1. 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2.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믿음으로 덕스럽게 행하지 못했던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며 도와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28 과

불의와 사망

· 찬송 : 184장, 188장

· 성경 : 요일 5:12-21

· 요절 : 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도는 새 생명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해야 합니다.

1.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불의에서 멀어지고, 사망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능력과 거룩한 삶을 본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생명을 구하는 기도

성도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예수님

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올바른 생활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 적용

1. 나에게 정말 영적 새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요일 5: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약속대로 새 생명이 있습니다.

2. 나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다른 믿음의 식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도하며,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불의를 이기며 사망을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제 29 과 죄와 탄식

· 찬송 : 187장, 192장

· 성경 : 시 38:1-18

· 요절 : 시 38:18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질병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이 땅은 고난과 질병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곤고와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절망에 빠지고 말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1. 나를 징계치 마소서

3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물론 마음의 고통은 더욱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노로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성도는 질병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환란이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성도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2. 나의 친척이 멀리 하나이다

11절에 다윗은 평소 사랑하며 함께 하던 친척들도 자신을 멀리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곤고해지고 비참해질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적 용

1. 나의 형편이 곤고하고 환란 중에 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말해봅시다.

2. 또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얘기해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환란 중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과 고난의 때에 속히 도우셔서 악한 자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더욱 정직하고 거룩하게 훈련받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 봉독 사 회 자
- 3) 메 시 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